로컬플러스

군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군산시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행정, 생산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농가 지원책으로 이행강제금 60~75% 감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적용 유예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축산업 허가제 주요 핵심절차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축협, 축산관련단체, 축산농가, 각 읍면에 배부했다.

무허가 축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내에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북은행, 설 선물꾸러미 기탁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18일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 꾸러미 150박스와 생필품 선물세트 200박스 (환가액 675만원상당)를 익산시에 전달했다.

선물꾸러미는 명절에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복나눔마켓과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정영 부행장은 전북은행이 어르신들을 위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떡국무료급식 행사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나누고,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등 덕담을 나눴다.

전북은행은 명절 뿐 아니라 연말에도 선물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등 익산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디지털농업인대학 내달 3일까지 입학생 모집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선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디지털농업인대학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디지털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9기에 걸쳐 36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상호 유대감 증진과 교육 피드백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40명을 선발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 농민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입학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영교육계(454-5241~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AI 유입 차단 총력

거점소독시설 설치등 읍면동 협업 통해 24시간 철벽 방역활동

군산시가 AI 유입 원천차단 방역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에는 현재 대규모 22농가에서 63만7000수를, 소규모 392농가에서 8000수 등 총 64만5000수의 가금류가 사육중에 있다.

더욱이 군산지역에는 20만수의 철새가 나포십자뜰 등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만큼 많은 철새들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특별 방역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군산시는 AI 차단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시 관련부서와 읍면동의 협업을 통해 24시간 철벽 차단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강변 자전거도로 출입통제를 했으며, 보건소 소독차와 공군 제38전대의 제독차 지원을 통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동호인과 사진작가 동호인 SNS 등을 활용해 금강호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AI로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AI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 금지, 손 자주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농장주에 대해서도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택배 및 우편 배달원 등 외부인 농장내 출입 자제, 농장 앞 표지판 설치, 쥐·들고양이 등 AI 전파 매개체의 농장 내 진입차단을 위한 덫 설치,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철저한 방역관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한준수 부시장은 '27개 전 읍면동장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군산시는 AI 비발생지역이지만 철새 이동경로로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철새 도래지 주변과 가금농가에 대해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함은 물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해 AI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AI 발생으로 전국에서 32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었고, 인근 김제, 부안 등지에서도 2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설 맞아 익산 곳곳 온정의 손길 이어져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 웅포면 기부천사로 불리는 김기진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년째 어려운 이웃에게 한결같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의 성금을 지난 1월 11일 웅포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상노)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인환)는 이웃돕기성금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탁하여 10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했다.

의용소방대(대장 김용환)는 오산면 희망동행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기탁하고, 오산면 55개 마을은 희망2017 나눔캠페인에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이웃돕기성금 967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관내 자동화기계 설비 제작기업 이존(대표 김용훈)은 쌀 10kg 150포(250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통리장 등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 75가구에 2포씩 지원하여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병진)위원과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로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18일 사랑의 선물 나눔행사를 펼쳤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지역현안 논의

"시민생활 직결되는 민생처리 위해 현장활동 강화"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만큼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처리를 위해 현장 체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견제와 균형속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의회, 시민들과 더불어 고충과 아픔을 살피는 열린의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의회, 급변하는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창의의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산시 최대 현안문제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폐쇄는 대량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역정치권, 군산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선박건조 물량배정과 조선업 지원책 요청 등 다양한 각도로 마지막까지 전력전투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장은 "성공적인 의회의 운영과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군산시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작년 한해 88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조례안 90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3건, 예산안 4건, 기타 26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결의)문 9건, 성명서 3건, 시민들에게 새롭게 적용될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을 발의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현장중심 예방활동으로 해양오염사고 줄어

전북해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가 총 9건으로 유출량은 3,076ℓ에 이른다.

이는 2015년 대비 오염사고는 10건에서 9건으로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유출량은 2만6,102ℓ에서 3,076ℓ로 약 88.2% 감소시키는 성과이다.

이처럼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한 이유로 해경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방제대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해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오염사고 가운데 어선에서 발생한 오염사고가 66%(7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원인은 해양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이 전체의 56%(5건) 부주의 44%(4건) 순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채광철 서장은 "올 해에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주거복지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익산시는 18일 오후 시청 주택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집수리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등 관내 3개 복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소장섭 주택과장을 비롯한 문정선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장, 김동욱 원광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 동안의 일시·수시적인 협업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업체계 구축으로 수혜자를 다양화해 주거복지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그 동안 소외이웃 지원에 앞장서온 관련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주거복지행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의 모범사례다.

앞으로 3개 기관에 소속된 현장방문 활동보조인들은 시에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시는 주거취약세대 발굴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소규모 수선교체사업인 경우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 도배, 장판 시공 등은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현장을 찾아 시공을 한다.

시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여건 확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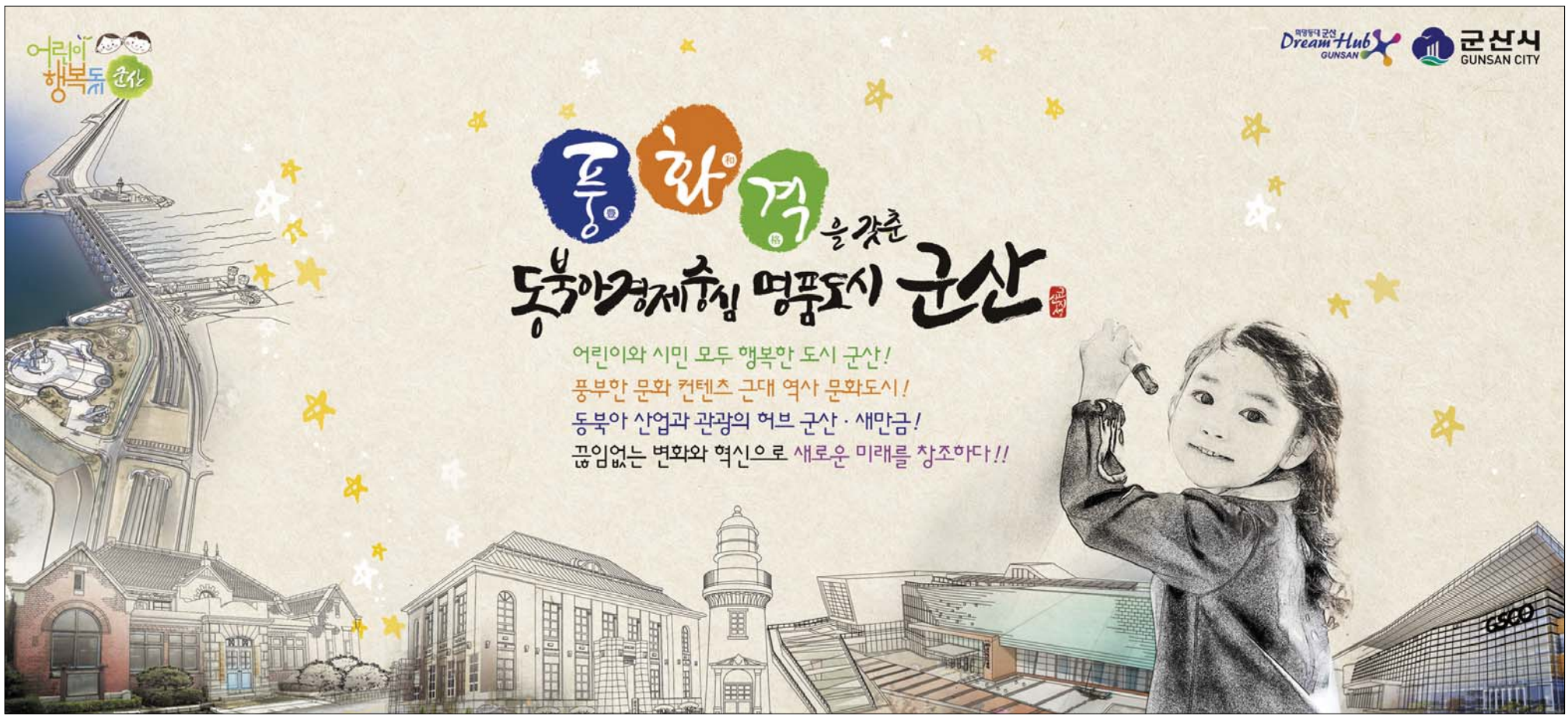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올해 주거급여 86억3천만원 지원

군산시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대상자 중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으로 71억원을, 주택 소유가구의 수선유지비용으로 15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생활 상향이동, 양질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지난해 6500가구에 77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후 신청자 소득과 재산, 부양의 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1~3)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